



이영희개인전 | 톨:12

C R A C K : 1 2

LeeYounghee

2013.3.18 - 3.30

갤러리 비원  
GALLERY B'ONE





Siheung 2012  
Digital print

## 틈 12

이번 이영희 전시는 두 개의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2012년 동안 시흥 일대의 농경지역을 촬영한 사진과 자신의 작업을 기록한 책이며, 두번째는 갤러리 공간에서 보게될 드로잉, 오브제, 설치작업이다.

### 성찰과 재생의 시간

이영희는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틈」이란 주제 아래 「밭굴」, 「삶」 등의 부제가 붙은 작업을 선보여 왔다. 벌어진 틈 사이로 드러나는 생명, 혹은 침잠된 과거 시간들의 재발견과 같은 것들을 통해 그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삶과 삶 사이에서 존재하는 간극과 이를 인식하는 존재가 대면하게 되는 부조리인데, 작가는 이같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섬유, 왕겨, 황토와 같이 단순하고 친근한 재료들을 이용해 형상화한다. 이 재료들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작업 재료로 쓰여 질 수 있는 것들로, 왕겨를 씻고, 건조하고 반죽으로 만드는 것 혹은 면사, 끈사, 태모시들을 손질하고 염색하는 과정들은 그의 형이상학적인 작업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그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같은 노동의 과정은 오늘날 컨템포러리 미술에서 작가가 스스로 상정한 개

념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예술가가 직접 이 과정을 수행하지 아닌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성과 관념의 합일과 같은 고전적인 '진실성'을 위해 충실히 이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해서 관람객들이나 비평가들에게 더 많은 의미부여를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 수공예적인 숙련도로 예술을 구속할 수 있으며, 예술 작품의 영적이며 관념적인 부분을 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작업이 많은 부분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작가는 2012년 일 년 동안 시흥일대의 농경지를 매일 방문 그 일대를 촬영하고,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자신의 작업을 진행해나가는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오랜동안 그가 사유해 온 틈이라는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환유적으로 또한 형태적으로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 왕겨가 씨에서 버가 되고 탈곡되는 순환의 과정을 직접 봄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매체에 대해 좀 더 체화된 사유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형태적으로 그가 많은 영감을 얻는 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림으

로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흥일대의 풍경사진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순환은 그곳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안에서 대상과의 일체감을 느꼈던 작가에 의해 드로잉, 오브제 설치 작업과 같은 미술의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나는 작가와 그가 선택하는 재료 사이에는 은밀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종종 그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 이영희가 왕겨를 선택한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하고 소멸하지만 다시 부활하는, 다시 말해 인류가 수많은 신화에서 만들어 낸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거름으로 연료로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에너지로 환산되는 '버릴게 하나 없는' 왕겨의 헌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모성의 속성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확실한 것은 이영희의 「틈」에서 대지가 그 예민함과 관대함 그리고 규정되어질 수 없는 원초적 에너지를 내포한 형태로 무한히 확장되고 형상화 될 때, 작가와 그의 재료는 긴밀히 연결되어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은 각 존재가 만나게되는 장소이자, 각자의 역사성이 면면히 얽혀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곳에서 삶과 예술이, 관념과 물질이 합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영희에게 틈이란 개인으로서, 작가로서 불안과 함께 감지되는 부조리함과 '의미 없음을 어떻게 넘어 설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실존의 타당성을 증명해 나가는 곳이다. 마치 20세기 중반 전쟁과 기존가치의 붕괴, 모더니즘의 속도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 자신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 밖으로 스스로를 내던지고, 자기자신 밖으로 잃어버림으로써 실존한다' 고 선언했듯이, 이영희는 탁 트인 대지가 몽글거리고, 솟구치며 자신의 재생과 삶의 에너지를 증명하는것을 통해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 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영속시키고 그의 예술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박기현

독립큐레이터 / vitrine by AAM



Untitled 2012  
Mixed media  
23X30cm  
3/9



Crack 2012  
Mixed media  
Installation



## 눈을 감는다



Untitled 2012 Charcoal on Paper 55X80cm

눈을 감는다. 수많은 시간들이 흐른다. 땅이 솟구쳤다 가라 앉는다. 새로운 종(種)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밝아진다……

생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면 나는 눈을 감고 거대한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년, 내가 살아갈 나이는 기껏 80 - 90년. 나는 이 거대한 시간 속에 점 하나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137억년이란 생을 살아가는 우주도 있는데 80년을 못 살아내라, 하는 생각이 든다. 희망도 절망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생을 견뎌내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상상 끝에는 우주 속을 홀로 유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러면 문득 외로워진다. '나는 우주에서 홀로 80년생을 견뎌내다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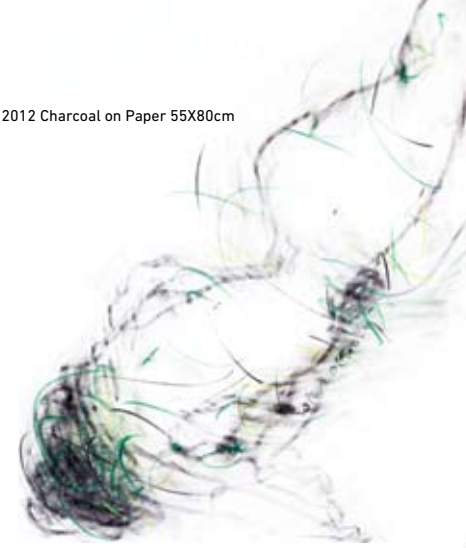
이영희 작가의 작품을 접했을 때 먼저 나는, 역겹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이가 나쁜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작가는 고분, 암각화, 토기 등 오랜 시간이 담긴 것을 작품 소재로 삼았다. 그의 작품에서는 천 년이란 시간이, 만 년이란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현실에 등장하여 숨을 쉬었다. 1만 년 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모양 작품이 현대 전시실 안에 걸려 있다. 기원전 암각화가 현대 전시실 안에서 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현재와 맞닿아 있는 작품들을 보며 나는 내 몸 안에 담겨 있을 옛 시간의 DNA를 떠올렸다. 토기를 쓰던, 돌에 그림을 새기던 저 먼 인류의 DNA가 내 어딘가에 전해져 내려와 있을 것이다. 웬지 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은 80년 생을 견뎌내는 것만 생각하는 내게 이번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작품 「틈」은 오랜 시간에 관심이 많은 이영희 작가가 땅, 대지를 소재로 삼은 연작이다. 땅에 균열이 생겨 싹이 돌아난다. 싹은 아주 작아 보인다. 그런데 땅 아래를 보면 어마어마한 뿌리들이 싹을 밀어 올리고 있다.



Untitled 2012 Charcoal on Paper 55X80cm

Untitled 2012 Charcoal on Paper 55X80cm



이것은 작가의 발견이다. 매일 밟히기만 했던 땅이지만 사실 그 속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작가는 발견했다. 땅속에 있는 것들은 감춰져 있지만, 약해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 그 힘을 때로는 균열이나 지진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무수하고 다양한 뿌리라는 상징으로 땅에 숨겨진 힘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대지를 걸어서 바라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힘이 아래에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는 이것이 여성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이 작품들 속에서 잠시 내 주변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자주 밟혔던, 유약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날 솟아 오르기를.

우리는 지금도 땅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이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에서 생겨난 땅은 내년에도 수천 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의 지난 작품들이 '과거'와 '과거에 연결된 현재'에만 의미를 두었다면 땅을 소재로 하는 이영희의 「틈」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른다. 땅은 순환하므로, 알고 보면 놀라운 힘을 가진 땅은 먼 과거부터 먼 미래에까지 존재한다.

이제 나는 이 생의 의미를 80년을 견뎌내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 나는 죽어서도 다른 생으로 움직일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힘으로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것.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생을 견뎌낼 새로운 힘이 될 것 같다.

눈을 감는다. 수많은 시간들이 흐른다. 나는 순환한다.

**Education**

- 2009 Myongji University.
- 2000 Sejong University.
- 1988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84 Duksung Women's University.
- 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lo Exhibitions**

- 2013 Crack:12, b'One Gallery, Seoul
- 2011 CRACK, Gana Art Space, Seoul.
- 2005 CRACK-LIFE, Gana Art Space, Seoul.
- 2003 CRACK-LIFE, Gana Art Space, Seoul.
- 1998 EXCAVATION-ISLAND, Total Open-Air Art Museum, Jang-heung.
- 1997 EXCAVATION-CRACK, Kwanhoon Gallery, Seoul.
- 1995 Gallery Teo, Seoul. / Evacuation

**Group Exhibitions**

- 2001 Fiber Art Exhibition by Twenty Artists, Wooduck Gallery, Seoul. / Seoul Fiber Art Exhibition, Wooduck Gallery, Seoul.
- 2000 Straw and Grass Art Exhibition, Puchon Municipal Gallery.
- 1998 Daesungril Art Project, Daesungril / Seoul Fiber Art Fair, Seoul Municipal

Museum.

- 1997 Art Work Manufacture, Young Deung Po Shin Sae Gae. / Search for Koren Design Exhibition(4), Kwan Hun Gallery, Seoul.
- 1996 Arabian Exhibition, Royal Cultural Center, Amman, Jordan. / Display Project, Shin Sae Gae. / Art Work Manufacture, Young Deung Po Shin Sae Gae. / Show Window Display and Art Work Manufacture. / Seoul Fiber Art Exhibition, Si-Rip Gallery. / Korean Sculpture Flight Exhibition, Seoul Cosmos Gallery. / Art Work Project, Mia Shin Sae Gae. / Search for Korean Design, UnHyunGoong Galley, Seoul. / Art Work Manufacture, Young Deung Po Shin Sae Gae. / Ulanbatore Exhibition, Ulanbatore National Gallery, Mongol.
- 1995 New Zealand Congress Chairman to Participate in the Invitational Exhibition for Koren Artists, Oakland Convention Gallery, New Zealand. / Display Project, Young-Dong Shin Sae Gae Department Store, Spring Festival. / Commemorate exhibition for the 4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of Uzbekistan, National Art Center, Tashkent. / Solrak International Bienale, Sorak Resortel, Sokcho.
- 1994 the 4th Extension of Consciousness, National Art Center, Seoul. / the Invitational

- Art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ShinMisool(New Art) Gallery, Shin Misool Gallery, Seoul. / the Invitational Exhibition for Korean Artists by Governor of Zechuan Province Gallery. / the 12th New Art Exhibition,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Seoul. / Solrak Art Exhibition, Sorak Resort, Sokcho. / Search for Korea Design Exhibition for 5 artists, UnHyunGoong Gallery, Seoul.
- 1993 Space and Space Exhibition at Pine Tree Gallery, Seoul. / the 3rd Extension of Consciousness Exhibition. / the 1th New Art Exhibition,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Seoul. / the Invitational Exhibition for Korean Artists to commemorate the 2nd Anniversary of Independence of Uzbekistan at National Art Center, Tashkent.
- 1992 the 5th Field of Textile Plastic Exhibition, Tore Art Space Gallery, Seoul.
- 1989 the 4th Field of Textile Plastic Exhibition, Seoul Municipal Art Center, Seoul.
- 1987 the 3rd Field of Textile Plastic Exhibition, Kyungin Gallery, Seoul.

**Prize**

Won the Silver Prize at the 3rd Korean Paper Art Exhibition, National art Center, Seoul.

**학력**

- 2009 명지대학교 대학원 수료, (아동학)
- 2000 세종대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1988 서울대 사범대학원 수료.
- 1984 덕성여자대학 졸업.
- 1980 서울교육대학 졸업.

**개인전**

- 2013 틈 : 12 갤러리 비원, 서울
- 2011 틈,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5 틈 - 샵,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3 틈 - 샵,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1998 발골 - 섬, 토달미술관, 경기도 장흥.
- 1997 발골 - 틈, 관훈갤러리, 서울.
- 1995 갤러리 터, 서울. / 틈

**단체전 및 기타**

- 2001 20인의 섬유조형전, 우덕갤러리, 서울.

/ 서울섬유미술제, 우덕갤러리, 서울.

- 2000 짚풀아트전, 부천시민회관.
- 1998 겨울대성리전, 대성리, / 죽산국제예술제, 죽산. /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 1997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벽감용 Art Work 제작 참여. / 4인전 - 문양의 탐색(4), 관훈갤러리, 서울.
- 1996 요르단 국왕초청 아라비아전, Royal Cultural Center, Amman, Jordan. /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년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참여.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벽감용 Art Work 제작 참여. / 애경백화점 소원도우 디스플레이 및 벽감 Art Work 제작 참여. /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 한국조각의 비약전, 코스모스갤러리 기획, 서울. / 신세계백화점 미아점 벽감용 Art Work 제작 참여. / 4인전 - 문양의 탐색(3), 관훈갤러리, 서울. / 울란바토르전, 울란바토르국립미술관, 몽골.
- 1995 뉴질랜드의회외장초청 한국작가 초대전, 오클랜드 캔벤션미술관, 뉴질랜드. / 신세계백화점 영등점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참여, Spring festival. / 우즈베

- 키스탄 독립 4주년 기념 타쉬켄트전, 타쉬켄트 예술의 전당, 우즈베키스탄. / 설악국제비엔날레, 설악프라자 패 밀리티온 전시장, 속초. / 운미회전, 덕원미술관, 서울.
- 1994 제 4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갤러리 신미술 개관 초대전, 갤러리 신미술, 서울. / 중국 사천성장 한국작가초대전, 사천성미술관, 중국. / 제 3회 종이미술전 은상, 예술의 전당, 서울. / 제 12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 설악자연미술제, 설악리조트, 속초. / 5인전 - 문양의 탐색, 운현궁 미술관, 서울.
- 1993 4인전 - 공간과 공간, 소통의 회복전, 소나무갤러리, 서울. / 제 3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제 11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 우즈베키스탄 독립 2주년 기념 한국작가초대전, 타쉬켄트 국립 예술의 전당.
- 1992 제 5회 섬유조형의 장, 토 아트스페이스, 서울.
- 1989 제 4회 섬유조형의 장, 시립미술관, 서울.
- 1987 제 3회 섬유조형의 장, 경인미술관, 서울.

갤러리 비원  
GALLERY B'ONE

127-3 Hwa-dong, Jongno-gu,  
Seoul, Korea 110-210

110-210  
서울시 종로구 화동 127-3

T +82 (0)2 732 1273  
http://gallerybeone.kr